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현황 분석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Reading Related Qualifications and Management Plan

황 금 숙(Gum-Sook Hoang)**

김 수 경(Soo-K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민간자격 공인제도 |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III.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현황 분석 |
| 2. 연구 방법과 범위 | 1. 독서관련 자격증 현황 |
| 3. 선행연구 | 2.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현황 |
| II. 민간자격 제도 개요 | VI. 결론 및 제언 |
| 1. 민간자격 등록제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제도를 살펴보고, 독서관련 자격증의 발급 현황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결과, 278개 과정의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비공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의 노력과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되었다. 이를 토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독서관련 자격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독서, 독서지도사, 독서관련 자격증, 독서관련 교육과정, 독서관련 자격증 제도, 독서문화진흥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the reading related qualifications that examine the issues into the curriculum of reading-related qualifications specifically. The results of analysis, 278 reading related qualifications are both operated by the private non-accredited. And reading related qualifications system was required the effort and systematic enhancement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education information. On the basis of the survey, It is proposed operational plans for the quality of reading-related qualifications by cooperation of the private and government that are utilized as a reference in the promotion policy.

Keywords: Reading, Reading instructor, Reading related qualifications, Reading related courses, Reading the relevant certification system, Reading culture promotion

* 이 논문은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독서관련 자격증 현황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gshoang@daelim.ac.kr) (제1저자)

*** 창원문성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 (ksk2012@c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5년 3월 1일 •최초심사: 2015년 3월 2일 •게재확정: 2015년 3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291-320,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3.29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인류는 문자 발명을 통해 오랜 시간의 사고와 감정, 지식을 기록·보존해 왔다. 독서는 이러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서는 일상생활과 직업전문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정서 함양과 내면적 성숙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독서는 그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예술향유 능력을 꼽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바로 독서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문화 창조력을 증진시키고자 독서환경 조성은 물론 독서교육 강화, 독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독서와 관련한 여러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및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은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보다 강조했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 이미 수학능력시험과 논술이 시행되면서 독서가 주요한 입시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기록 평가하고, 이를 대학 입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독서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및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적 영역 뿐 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거대한 독서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민간 독서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서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둬으로써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나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 독서 및 도서관 정책, 시민단체의 독서운동으로 형성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강조가 한편으로는 독서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독서관련 민간기관 및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양성되는 독서지도사들은 우리 사회의 독서교육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공헌도 하였지만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의 사교육 담당인력을 양산하고,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을 확대하는 등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이연옥 2004, 41-63).

최근에 와서 각종 민간자격증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에 교육부에서는 2008년 우수한 민간자격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3). 독서와 관련된 자격증도 현재 많은 민간단체에서 아주 다양하게 발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자격증의 질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독서·출판계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증 수여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이수 과목의 선정 및 내용에 대한 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독서관련 자격증 발급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의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방안을 제언하고, 이를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사례 조사를 통해, 독서관련 자격증 발급 현황 사례 조사와 독서관련 교육훈련 과정 현황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셋째,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go.kr)에 등록된 자격증 중 ‘독서’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자격증 현황 조사에만 국한시켰으며, ‘북(Book)’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북아트지도사 등 123건의 자격증과 ‘동화’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동화구연지도사 등 113건의 자격증 현황 조사는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독서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공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사서 집단이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설 학원, 교육 기업 등에서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각종 민간영역에서 민간자격을 소지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서교육사전』에 의하면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독서지도사(reading coach)와 독서지도 전문가(reading specialist)를 구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2006).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독서지도사는 일반적인 독자나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동기 유발과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유치원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 성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사적인 모든 조직이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다. 독서지도사는 정교사 자격증이 없고 학교에도 근무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하는 사람들이다.

독서지도 전문가(reading specialist)는 독서 부진아 또는 지진아의 독서 문제를 진단하고 교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보통 학생들의 읽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말한다. 독서지도 전문가는 국어과 교사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지도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교육부나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은 초등교사, 국어과 교사 외 교과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은 사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설기관에서 독서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설기관의 양성 프로그램은 학부모나 일반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가정과 사회전반에 독서 분위기를 과급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나 이러한 사설기관의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공적으로 인정할 만한 신뢰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고, 운영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영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우려도 있다(신헌재 1999, 212).

2007년 정부가 자격기본법을 제정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2008년에 14개인 독서관련 자격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교육 및 지도 전문 인력양성 및 민간자격에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수진(1998)은 독서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계독서협회 사례와 우리나라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자 교육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독서교육 지도자 전문교육과정, 가톨릭교육문화원 독서력 지도를 통한 학습문제 전문가(reading specialist) 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문제점을 독서지도사 양성교육기관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교육 내용에 있어서 수강생들의 요구를 크게 만족시키지 못한 점, ② 수강생들의 교육 지도자로서의 자질 문제, ③ 현실적으로 수강생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점, ④ 교육과정들의 대부분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⑤ 수강 대상자가 대다수 전업주부라는 한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들

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독서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1) 정책적인 양성체계 정비의 부재, 2) 자질과 자격검증에 대한 객관성 결여, 3)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1) 학교교육 및 학교도서관 개선에서는 ①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실시, ③ 다양한 독서교육 방법의 개선, ④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2)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선에서는 ①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방안 개선, ② 독서교육 프로그램 대상층의 확대, ③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으며, 3)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의 정비로는 ① 각 양성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개선, ② 자격 검증제도 도입 및 정책적 뒷받침, ③ 대학 및 대학원 정규과정 개설 등을 제시하였다.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신헌재(1999)는 초등 관련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고 초등 관련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의 지향점을 제시하였으며(신헌재 1999, 209-230), 한철우(1999)는 중등학교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방안으로 독서지도 전문가 과정의 목표와 미국 대학교의 독서지도 전문가 과정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대학원의 독서교육 전문가 과정의 교과과정을 제시하면서,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방안으로 ①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 ② 시·도교육청 교원연수원 자격 연수과정, ③ 사회교육원의 전문가 과정 및 이수 시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한철우 1999, 232-247). 또한, 최영환(1999)은 민간 독서지도사의 자질과 함께 민간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의 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① 표준교육과정 편성, ② 독서지도 전문 자격의 공인, ③ 교육기관과 강사의 자격강화, ④ 공식 교육과의 연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최영환 1999, 284-306). 그 외, 이삼형, 박희찬, 정옥년(2001)은 독서교육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하여 논하고 독서교육 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이삼형, 박희찬, 정옥년 2001, 163-189).

한편, 이정희(2003)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서지도사 양성 프로그램과 양성된 독서지도 전문가의 자질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독서지도사 양성기관의 프로그램을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과 민간단체의 두 범주로 나누어 양성과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양성기관과 수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독서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지원동기 및 만족도에 관해서는 ① 개설 목적의 재정립, ② 양성과정의 사회적 인식, ③ 양성 기간의 확대, 2) 양성 기관에 대해서는 ① 개설 기관의 일원화, ② 한 반 수강 인원수의 축소, ③ 지원 자격요건의 강화, 3) 양성 과정 담당강사에 대해서는 ①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사진 구성, ② 강사의 자질

에 대한 제고, 4)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해서는 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비율의 조정, ② 표준 교육과정의 편성, ③ 공식교육과의 연계 확대, ④ 독서지도 시기에 대한 인식 제고, ⑤ 활동 영역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제안하였다(이정희 2003).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변우열(2008)은 독서교육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의 기준을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였으며, 미국, 일본, 한국의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국의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학과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해 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서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중시하고 여러 가지 독서활동을 강조하며, 독서교육과 관련된 인접 학문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어교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읽기와 독해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독서의 3요소인 독자, 독서자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이론과 철학을 포함시키고 교육경험과 실습을 강조하며, 독서교육과 관련이 있는 인접 학문을 포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변우열 2008, 187-212).

이만수(2009)는 민간단체에서 배출한 독서교육 지도자가 바람직한 독서교육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훌륭한 자질을 갖춘 독서관련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람직한 교육과정이라는 인식하에 국내에서 수여되고 있는 독서교육 관련 민간자격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여 독서교육 담당자(민간)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이만수 2009, 181-202).

차성중(2014)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독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환경 기반에서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독서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주요 교육과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특장점을 모색한 후, 독서지도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과 검증 작업을 거쳐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차성중 2014, 213-247).

그 외, 김덕기, 김상진, 박종성(2013)은 민간자격은 국가자격보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적으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허위·과장 광고,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신설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자격 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민간자격의 질 관리 기제로서 등록제와 공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간자격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현황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민간자격관리

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자율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김덕기 외 2013).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크게 독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련한 연구(고수진, 이정희),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에 관련된 연구(신헌재, 한철우, 최영환, 이삼형; 박희찬; 정옥년),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변우열, 이만수, 차성중) 등이 있으며, 그 외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방안(김덕기; 김상진; 박종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증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민간자격 제도 개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자격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¹⁾에게 등록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제외한다. 공인자격은 등록자격 중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정책심의회²⁾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의미한다.

1. 민간자격 등록제

민간자격 등록제(이하 '등록제')는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등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하지만 민간자격의 등록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등록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미등록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면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등록제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민간자격 금지분야²⁾를 제외하고, 주무부장관은 신청 받은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1)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②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④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주무부장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시스템³⁾에 공고하여야 한다.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표 1>과 같이 크게 자격의 분야와 명칭, 민간자격관리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등록은 두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며, 등록 자체가 민간자격의 품질 또는 운영권한 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김덕기 외 2013).

<표 1> 민간자격 등록요건

영역	기준	관련 근거
민간자격 금지분야 (명칭포함) 여부	- 자격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된 명칭 및 자격검정이 금지된 자격분야가 아닌 경우	자격기본법 제14조, 17조, 제23조 등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미성년자·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자격기본법 제18조

출처: 김덕기 외(2013).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47 재구성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와 함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 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반드시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구분은 「자격기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제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등록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⁴⁾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한다.

민간자격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2,726개 기관에서 11,911개 민간자격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평균 약 1,700개의 민간자격이 신규로 등록하고 있는 것

3)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www.pqi.go.kr

4)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며, 특히 사전등록제도 도입되어 시행된 2014년의 경우 5,301개 민간자격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면 향후 민간자격의 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2014.10. 23)

연 도	등록자격
2014	5,301
2013	2,700
2012	1,411
2011	1,001
2010	524
2009	353
2008	621
합 계	11,911

출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go.kr)

2. 민간자격 공인제도⁵⁾

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중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의 조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공인’을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이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 3>과 같이 두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법인이 운영하는 등록자격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검정 실적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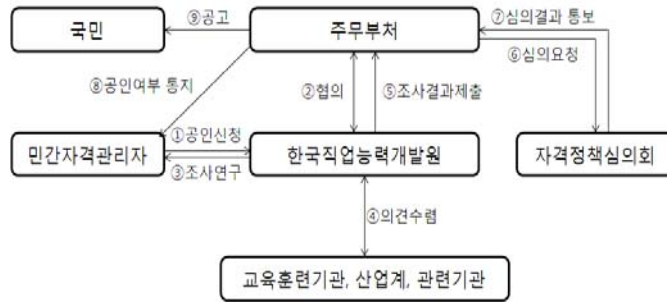
〈표 3〉 민간자격 등록요건

법적 요건	기준	관련 근거
공인 신청 대상	- 법인이 관리하는 등록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검정 실적	- 등록 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자격기본법 제18조

신규 공인을 위한 조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이와 관련된 주요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

5) 김덕기 외(2013).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의 일부 내용(pp. 49-59)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보면, 조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직능원⁶⁾, 공인의 주체가 되는 주무부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인 자격정책심의위원회, 공인신청의 당사자인 민간자격관리기관이 있다.



출처: 서준호 외(201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p

<그림 1>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 절차

공인을 위한 조사기준은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와 제26조(조사 등)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크게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자격분야)와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기관분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기준은 공인민간자격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와 직능원이 협의하여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표 4>와 같다.

공인을 받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은 해당 공인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자격 검정의 수준을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분야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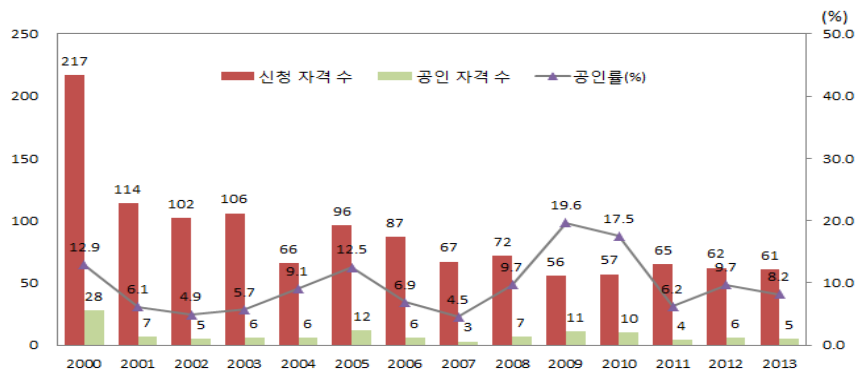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표 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 기준

영역	하위 영역	항목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 (자격분야)	- 자격의 필요성	· 운영 목적 · 자격의 활용도
	- 자격체계의 적합성	· 검정 기준 · 검정 방법 · 검정 과목 · 응시 자격
	- 출제 및 채점절차의 적합성	· 출제기준 · 문제의 적절성 · 출제절차 및 보안 · 채점기준 및 절차 · 채점관리
	- 검정시행의 적합성	· 검정계획 및 실행 절차 · 시험 감독위원 · 시험문제 보안 · 검정료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기관분야)	- 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 관리 운영 조직 · 인력 · 시설장비 · 재정 · 발전 계획 · 자격 발급 및 등록 · 사후관리

출처: 서준호 외(201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국가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2000년도에는 108개 기관에서 217개 자격이 공인을 신청하였고, 이 중에서 28개(12.9%) 자격이 공인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총 1,228개 민간자격이 공인을 신청하여 116개 자격이 공인을 받았고, 평균 공인율은 9.4%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도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Ⅲ.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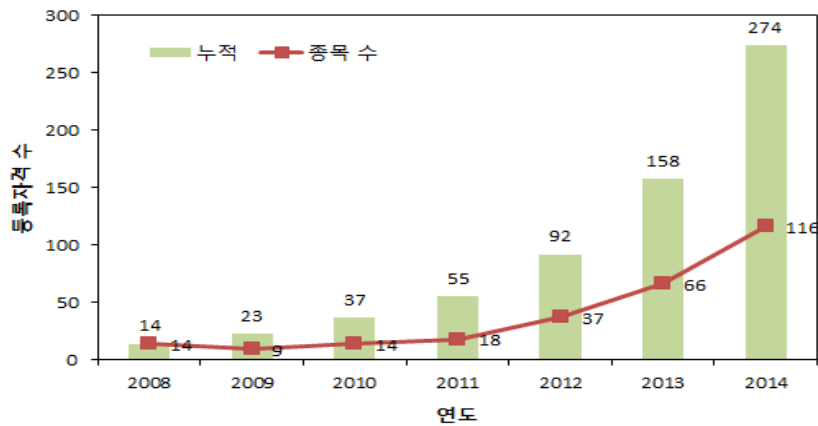
1. 독서관련 자격증 현황

가. 연도별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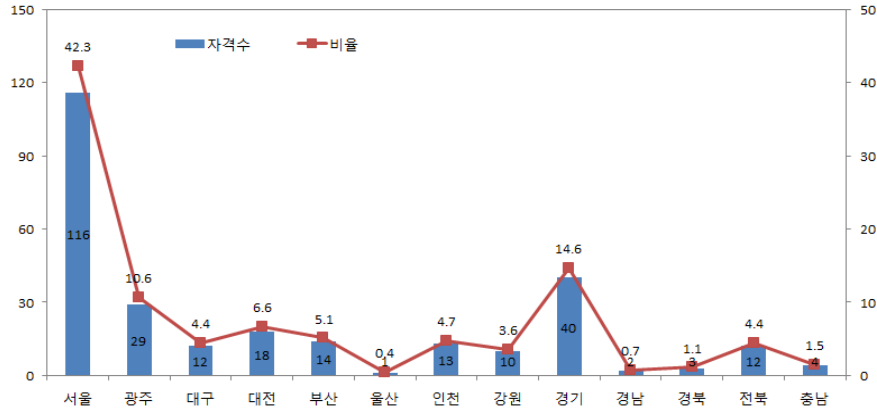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는 자격 명칭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자격의 명칭에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자격을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로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자격의 직무를 살펴보면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독서를 활용한 상담, 심리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독서관련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2008년도에 14개 자격이 등록된 이후 2014년 9월 말 현재 274개의 독서관련 자격이 등록되었다. 특히, 2012년부터 증가를 보이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2014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116개(42.3%) 자격이 운영되고 있고, 다음으로 경기 40개(14.6%), 광주 29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체 등록자격의 약 56.9%가 수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연도별 독서관련 등록자격 현황



〈그림 4〉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지역별 현황

나. 등록자격 명칭

2014년 현재까지 274개의 독서관련 자격이 등록되었지만, 자격명칭 기준으로는 88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3.1개 자격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그러나 동일명칭의 자격이더라도 <표 5>와 같이 자격의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합격기준 등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덕기 외 2013).

〈표 5〉 ‘독서지도사’ 등록자격 비교

기관	등급	직무내용	검정과목	응시자격	합격기준
A	1급	독서지도사라 함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평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능력향상을 고양시키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에게 독서교육 전반에 걸쳐 지도함과 동시에 독서지도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직무	독서지도 자격직무 연수	[연령] 해당없음, [학력] 해당없음, [기타] 독서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80점 이상 / 100 만점 (독서지도 자격직무연수)
	2급	독서지도사라 함은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 평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능력향상을 고양시키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에게 독서교육 전반에 걸쳐 지도함과 동시에 독서지도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직무	독서교육론, 독서지도방법론, 독서지도 실무	[연령] 해당없음, [학력] 해당없음, [기타]	60점 이상 / 100 만점

7) 민간자격 등록 시 기존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 명칭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므로 등록자격 중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B	등급 없음	교육현장에서 독서지도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 및 배경지식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지도방법을 통합 실제 독서 초·중등학생지도 업무수행능력이 가능한가를 검증	독서교육론, 도서선정론, 아동문학사, 발달단계에 따른 독서지도, 독서활동과 창의력, 독서교육 계획안,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지도, 이야기를 통한 독서지도, 독서토론, 독서상담	[연령]20대 이상, [학력]고졸 이상, [기타]독서지도 관련 강의 45시간 이상 이수자	140점 이상 / 200 만점 (필기점수와 실기점수) 합산 (과락있음) / 과제제출)
C	등급 없음	-아동, 청소년 대상 독서 지도 -평생교육원등 지도 강사 -독서관련 학습지상담교사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독서지도관련 학부모교육 강사	독서교육론, 아동문학지도론, 독서지도방법론, 글쓰기교육론	[연령]20대 이상, [학력]해당없음, [기타]	70점 이상 / 100 만점 (없음)
D	1급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독서 지도하는 독서지도자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특기 적성교사, 방과 후 공부방, 작은 도서관, 독서학습지 교사 등을 할 수 있음	독서교육론, 글쓰기론, 아동문학, 독후활동지도론, 독후활동 실기	[연령] 해당없음, [학력]고졸 이상, [기타]만 18세 이상, 고졸 이상, 경력 구분 없음	150점 이상 / 200 만점 (필기 : 100점 만점에 70점 합격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합격)
	2급		독서교육론, 글쓰기론, 아동문학, 교육심리학	[연령] 해당없음, [학력]고졸 이상, [기타]만 18세 이상, 학력 경력 구분 없음	70점 이상 / 100 만점 (필기)

출처: 김덕기 외(2013).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41

<표 6> 동일 명칭 사용 등록자격 현황

자격 명칭	자격 수	비율
독서지도사	67	24.5
독서논술지도사	46	16.8
독서심리상담사	28	10.2
영어독서지도사	14	5.1
독서코칭지도사	7	2.6
독서토론논술지도사	6	2.2
성품독서지도사	5	1.8
유아독서지도사	4	1.5
기타	97	35.3
합계	177	100

등록자격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표 6>과 같이 ‘독서지도사’로 전체 독서관련 자격의 24.5%인 67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서논술지도사’(46개), ‘독서심리상담사’(46개), ‘영어독서지도사’(14개)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무부처 현황

등록자격의 주무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교육부가 전체 등록자격의 74.5%인 204개 자격의 주무부처이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13.5%인 37개 자격의 주무부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등록자격의 12.0%(33개)는 주무부처가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주무부처 현황

주무부처	자격 수	비율
교육부	204	74.5
보건복지부	37	13.5
미 정	33	12.0
합 계	274	100.0

등록자격의 주무부처는 「자격기본법시행규칙」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며,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주무부처 분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교육부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독서논술분야 자격의 주무부처로 되어있다. 또한 독서를 활용한 상담, 심리 분야 자격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다. 즉, 독서라는 용어보다는 직무내용 즉, 독서를 어떠한 목적에 활용하는가에 따라 등록자격의 주무부처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범위에 대한 해석과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주무부처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표 8> 부처별 등록자격의 분야

주무부처	분야
교육부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등
보건복지부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 포함)·노인 및 장애인 및 보건사업기술 관련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레저 관련 분야

라. 등록자격 발급 기관

현재 독서관련 등록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은 187개이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기관 유형 중 영리법인이 55개(2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이 46개(24.6%), 단체와 비영리법인이 각각 40개(21.4%)로 나타났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법인 기관은 86개(46.0%)로 나타났다.

〈표 9〉 독서관련 등록자격 발급기관 현황

기관유형		기관 수	자격 수	평균
비법인	개인(개인사업체)	46(24.6)	56(20.4)	1.2
	단체(미등기)	40(21.4)	56(20.4)	1.4
법인	비영리법인(민법법인)	40(21.4)	70(25.5)	1.8
	영리법인(상법법인)	55(29.4)	85(31.0)	1.5
	특수법인(학교 등)	5(2.7)	7(2.6)	1.4
합 계		187(100.0)	274(100.0)	1.5

또한 기관별 평균 등록자격은 1.5개로 나타났고, 특히 비영리법인이 가장 많은 1.8개로 나타났다. 기관별 등록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5개 이상의 독서관련 자격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기관별 등록자격 운영 현황

구분	운영 등록자격 수								합계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274
기관 수	1	1	1	2	1	14	29	138	187

마. 등록자격 체계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체계는 크게 등급과 응시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등급체계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다양한 등급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은 2등급 체계로 전체 등록자격 중 110개(40.1%)이며, 다음으로 등급이 없는 자격이 103개(37.6%), 3등급 체계 자격이 53개(19.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독서관련 등록자격은 3등급체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자격은 12등급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등급체계

자격 등급 수	빈도	비율
없음	103	37.6
2	110	40.1
3	53	19.3
4	4	1.5
6	2	.7
8	1	.4
12	1	.4
합계	274	100.0

응시자격은 우선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이 전체 등록자격의 32.8%(90개)는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격이 있는 63.5%(174)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중 40개 자격은 독서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당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이와 134개 자격은 독서관련 교육과정 이수는 필요 없으나 학력(고졸 이상 등), 경력, 관련 자격취득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응시자격

유 형		자격 수	비율
무		90	32.8
유	교육과정 이수	40	14.6
	경력 및 학력	134	48.9
합계		274	100.0

바.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현황 시사점

이상과 같이 독서관련 자격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 독서관련 등록자격 수는 116개로 2008년도 등록자격 14개의 8.3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 독서관련 등록자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독서관련 자격의 사회적 수요보다는 등록요건의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까지는 1회 이상의 자격증 발급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었다면, 2014년부터는 자격발급 이전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를 자격명칭에 독서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자격의 직무를 살펴보면 논술 지도에서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독서관련 자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범위와 그에 따른 주무부처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독서관련 자격의 명칭만으로 자격취득자의 직무내용, 자격의 수준,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을 판단할 수 없다. 독서관련 자격 274개 중 '독서지도사' 명칭의 자격이 67개로 전체 자격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내용, 등급,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들을 활용하고자하는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4) 응시자격 측면에서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등록자격의 검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낮은 상태에서 독서관련 자격의 32.8%(90개)는 응시자격으로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으로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5) 독서관련 등록자격 발급기관의 46%(86개)는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없는 비법인(개인, 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자격은 112개로 전체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의 평균 국가 공인율(9.4%)을 고려하면 국가공인을 통한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현황

국내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비공인 자격증이며, 2014년 10월 31일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민간자격증 정보서비스⁸⁾에 등록된 자격증은 총 278개이다. 독서관련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공인된 것은 없으며, 2007년 <자격기본법> 개정 이후 등록된 자격증이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직능원에 등록되었다.

조사 항목은 자격명, 등록연도, 홈페이지주소, 설립년도, 소재지, 교육과정유형, 검정방법, 학습방법, 교육시간 교육과정, 취업지원여부, 보수교육 여부 등 총 12항목이다. 조사항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독서관련 자격증 명칭 현황

동일한 자격명을 2개 과정 이상이 사용하는 것은 16개 명칭이며, 나머지는 1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명칭이다. 독서관련 자격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3> 독서관련 자격명 현황

연번	자격명	자격명 사용 과정수(개)	자격명 사용 비율 (%)	비고(포함)
1	독서지도사	68	24.5	DAEKYO독서지도사, 재능독서지도사
2	독서논술지도사	60	21.6	독서논술전문지도사, 몬테소리독서논술지도사, 방과후독서논술지도사, 독서논술코칭지도사, 독서논술, NIE독서논술지도사, 독서논술상담사, 초등독서논술지도사, 독서통합논술, 독서논술학습지도

8)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http://www.pqi.or.kr/>, [2014. 10. 31].

3	독서심리상담사	40	14.4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독서심리지도, 독서심리전문상담사, 심리독서지도사, 어린이독서심리상담사
4	영어독서지도사	23	8.3	영어동화독서지도사, 영어독서코칭지도사, 쓱쓱영어독서지도사, YBM영어독서지도사, 미국교과영어독서지도사, SDU영어독서지도사, 융합몰입영어독서지도사, 어린이영어독서지도사, 영어독서지도전문인(ESRS) 포함
5	독서코칭지도사	14	5.0	독서코칭전문가, 독서학습코칭전문가, 독서습관코칭지도사(2), 독서코칭, 책놀이독서코칭지도사, 독서코칭상담사
6	독서토론지도사	10	3.6	독서토론논술지도사(4)
7	진로독서지도사	6	2.2	독서진로지도사
8	독서북아트 지도사	6	2.2	독서활용북아트교육전문가, 독서북아트, 독서북아트전문가, 독서교육북아트 지도사
9	창의독서지도사	5	1.8	브레인창의독서지도사, 창의독서인성지도사
10	성품독서지도사	5	1.8	
11	유아독서지도사	4	1.4	
12	아동독서지도사	3	1.1	
13	독서미술지도사	3	1.1	미술독서지도사
14	어린이독서 지도사	2	0.7	
15	독서교육지도사	2	0.7	
16	독서핵심요약 전문가	2	0.7	
17	기타	25	8.9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기타 명칭	독서논술능력급수증, 북라이크독서지도사, 글쓰기독서교육지도사, 독서능력검정급수, RIC독서지도사, 독서클리닉지도사, 독서스페셜리스트, 독서재활사, 통합독서지도사, 독서지도상담사, 독서스토리텔러, 독서버지지도사, 독서매너스피치, 독서캡프지도사, 학습만화독서지도사, 서양고전독서지도사, 독서셀프리더십지도사, 독서디베이트지도사, 독서마라톤인증서, 독서상담사, 독서습관체득지도사, 실버인지독서지도사, 융합몰입독서지도사, 융합몰입독서한자지도사, 인성독서전문가			

독서관련 자격증 중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이 68개 과정(24.5%)로 가장 많다. 독서지도사 중에는 주식회사 대교와 재능에서는 자체 교육과정으로 독서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도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독서논술지도사 60개 과정(21.6%)으로 독서논술전문지도사 등 독서논술이 포함된 명칭은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독서심리상담사 40개 과정(14.4%)로 많았으며,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등 독서심리지도 또는 상담이 포함된 명칭은 이 범주에 넣었다. 그 다음 순이 영어독서지도사, 독서코칭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등의 순이다. 기타에서는 1개 과정만 운영하는 명칭인데, 이 중 독서능력급수증, 독서능력검정급수 등 급수를 주는 과정도 2개가 있었으며 독서마라톤인증서를 발급하는 곳이 1곳 있었다.

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영어독서지도사 등은 2008년부터 있어왔던 명칭인데 반해 독서코칭지도사, 성품독서지도사 등은 2011년부터 등록되기 시작하였으며, 독서토론지도사는 2013년, 진로독서지도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서 독서관련 자격증은 시기에 따른 트렌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 운영 현황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 운영은 자격관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187개 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127개 기관(67.9%),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개 기관(7.0%), 나머지 47개(25.1%)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 127개 기관 중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과정은 29개 기관(22.8%)이며, 전체 278개 자격증 과정 중 33개 과정(11.8%)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독서관련 자격증 홈페이지 운영 현황

구분	홈페이지 운영 현황		교육과정 정보제공 현황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홈페이지 운영	127	67.9	29
카페 운영	13	7	4
없음	47	25.1	-
합계	187	100	33

다. 독서관련 자격증 등급 현황

독서관련 자격증 등급 운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독서관련 자격증 등급 현황

등급 구분	등급 유형	자격 과정수	비율 (%)	비고
단일등급	등급 없음	98	35.3	-1급/ 2급/ 단일등급/ 등급정보 없는 과정 포함
2등급	1, 2급	107	38.5	-초급, 중급 포함 -유아, 초등 포함 -지도사, 마스터 포함 -2급, 전문가 포함 -사범, 1급 포함 -기초, 전문 포함 -독서심리지도사, 프로독서심리지도사 포함
3등급	1, 2, 3급	52	18.7	-1급, 2급, 전문가 포함 -1급, 2급, 수련감독 포함 -1급, 2급, 통합 포함 -1급, 2급, 전문(강사) 포함 -1급, 2급, 통합전문가 포함 -1급, 2급, 전문(지도)사범 포함 -1, 2급, 주니어 포함

3등급 이상	1,2,3급 이상	8	2.8	-1,2,3,급+주니어/ 전문강사/명인/MASTER 외
*기타		13	4.7	3000km, 5000km, 10,000km 등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기타 : 정보가 없는 경우 및 km로 제시된 독서마라톤인증서과정 등

교육과정 등급은 278개 과정 중 1,2급으로 나누어진 과정이 107개(38.5%)로 가장 많으며, 등급 없이 단일등급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98개(35.3%), 3등급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과정이 52개(18.7%) 순으로 나타났다.

라. 독서관련 자격증 학습, 검정 및 기타 지원 현황

독서관련 자격증 검정방법, 학습방법, 취업지원과 보수교육과정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독서관련 자격증 학습 및 검정방법, 취업지원, 보수교육 현황

구분		운영 과정수	비율(%)
학습방법	온라인	33	11.9
	오프라인	11	4.0
	온오프병행	4	1.4
	정보없음	230	82.7
교육시간 (초급 기준)	90시간 이하	15	5.4
	90시간	12	4.3
	120시간	2	0.7
	120시간 이상	4	1.4
	기타*	13	4.7
	정보없음	232	83.5
검정방법	필기, 실기 병행	48	17.3
	필기	47	16.9
	온오프 병행	4	1.4
	온라인	2	0.7
	정보없음	177	63.7
취업지원		6	2.2
보수교육		11	4.0

*기타 : 시간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일, 주로 제시된 경우

학습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온라인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33개 과정(11.9%), 오프라인 11개 과정(4.0%),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이 4개 과정(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30개 과정(82.7%)는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교육시간인 경우 과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다. 시간으로 표시가 된 곳도 있고 12주, 2~4

개월 등으로 제시된 곳도 있다. 90시간 이하 과정이 15개 과정(5.4%)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90시간 12개 과정(4.3%), 120시간 이상 4개 과정(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2개 과정(83.5%)은 정보가 없었다. 적게는 21시간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총 53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도 있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격증 검정방법은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과정이 48개 과정(1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기만으로 검정하는 과정이 47개 과정(16.9%),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과정이 4개(1.4%), 온라인으로 검정하는 2과정(0.7%)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77개 과정(63.7%)는 검정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6개 과정(2.2%)으로 사단법인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의 독서핵심요약전문가과정,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유아독서지도사과정, (사)한국독서문화재단(글나라연구소)의 독서지도사과정, (사)한국방과후학교연합회의 독서논술지도사과정, 사단법인대한방과후협회의 독서지도사과정이 있다.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11개 과정(4.4%)이 있었다. 즉 (사)한국독서문화재단(글나라연구소)의 독서지도사과정,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유아독서지도사과정,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의 독서심리상담사, 독서코칭지도사과정, (사)한국상담심리연구원 독서코칭상담사과정, (사)한국상담심리상담전문학회의 성품독서지도사, 독서지도사과정, 로드아이의 독서미술지도사과정, (주)한국자격개발원의 독서코칭지도사과정, 한국기독교가족상담협회의 독서코칭상담사과정, 사단법인대한방과후협회의 독서지도사과정이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관련 자격증 과정은 학습방법, 교육시간, 검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일부 밖에 없어 자격증의 실효성과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 독서관련 자격증별 교육과정 현황

홈페이지 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곳이 33개 과정이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 교육과정 중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제공된 7개 교육과정, 즉 독서지도사, 성품독서지도사, 독서코칭지도사, 창의독서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독서미술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과정과 한 개의 교육과정이 제시된 5개 교육과정, 즉 독서습관코칭지도사, 독서학습코칭지도사, 융합몰입지도사, 독서재활사, 독서스페셜리스트 교육과정이 있다. 이중 지면관계상 가장 많은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독서지도사와 비교적 최근에 개설된 성품독서지도사의 교육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지도사 교육과정

68개의 독서지도사 과정 중 강의계획서가 소개되어 있는 15개 독서지도사 과정의 강의계획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10개의 영역의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공통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7〉 독서지도사 교육과정 공통 범주

영역	내용
독서 총론	독서의 이해, 독서과정 이론, 독서지도 원리
아동발달	발달 이해, 연령별 발달의 특성과 독서교육
아동문학 이해	아동문학의 역사, 성격, 구성요소와 교육이론
독서자료의 이해와 지도	도서자료 이해, 도서선정, 출판의 이해, 도서종류별 독서지도
언어 및 읽기 지도	어휘력 지도, 읽기방법 지도
글쓰기지도	갈래별 글쓰기지도, 독서감상문 쓰기 지도
독서논술지도	논술의 기초, 실제, 첨삭지도
토의토론지도	발문 작성법, 토론수업의 실제
독서치료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
독서활동 지도	독서전 지도, 독서 후 지도
통합 매체 활용	NIE활용, 영상매체 활용
독서지도 계획안 작성법, 독서지도 실습	독서지도 준비, 계획안 작성법, 독서지도 모의수업 및 실습, 사례발표
독서활동의 실제	고전 및 교양작품 읽기, 감상 및 내용 탐구
실기	언어표현지도, 동화구연, 마인드맵과 독서학습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진다. 이론은 독서와 아동발달, 아동문학, 독서자료와 관련된 것들이고 실제로는 읽기, 쓰기, 말하기(토의토론), 논술, 독서치료, 매체활용, 독서활동, 독서지도안 작성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독서와 관련된 4가지 언어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실제 지도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서의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다루는 과정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곳은 선택적으로 글쓰기, 토론토의, 독서치료 등 이론과 더불어 두세 가지 영역을 다루는 교육과정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 혹은 유아 독서지도사는 대상 연령에 따른 이론과 실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독서지도사 과정의 교육 대상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격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특수한 계층, 즉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직장인, 재소자, 군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독서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의 세 가지 영역, 즉 독서교육, 독서클리닉, 독서치료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도 있겠다.

(2) 성품독서지도사 교육과정

성품 교육의 일환으로 독서교육 활용한 성품독서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독서지도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성품교육에 대한 이해과정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5개의 성품독서지도사 과정 중 교육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사단법인 해피엘 원격 평생교육원의 성품독서지도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성품독서지도사 교육과정 예

1강 : 성품과 독서의 관계	13강 : 독서계획 수립의 계획
2강 : 21C가 요구하는 인간상	14강 : 도서선택의 중요성
3강 : 인격의 개념	15강 : 독서교육의 평가방법
4강 : 성품교육의 발달심리학적 배경	16강 : 단계별 독서지도
5강 : 성품교육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	17강 : 사실분석 방법
6강 : 성품칭찬의 개념과 방법	18강 : 독서질문 만들기
7강 : 성품칭찬의 단계와 요령	19강 :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8강 : 독서지도 개념과 성품독서지도사의 역할	20강 : 독서감상문 쓰는 방법
9강 : 독해력과 독서기술	21강 : 독해학습 지도안 만들기(1)
10강 : 성품독서학습의 기본원리(1)	22강 : 독해학습 지도안 만들기(2)
11강 : 성품독서학습의 기본원리(2)	23강 : 성품독서지도안 만들기(1)
12강 : 성품독서학습의 기본원리(3)	24강 : 성품독서지도안 만들기(2)
	25강 : 성품독서지도운영의 실제

바.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분석 및 시사점

이상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독서관련 자격증은 2014년 10월 현재 27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개 이상 자격명칭을 가진 것은 16개 과정이 있고, 25개 과정은 각 1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만 볼 때 41개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자격증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명칭에 합당한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② 자격증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기관 187개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127개 기관, 카페를 운영하는 기관은 13개 기관이며, 47개 기관은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으며, 홈페이지가 운영되더라도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은 29개 기관(22.8%)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③ 자격증 운영,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격증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시간, 학습방법, 검정방법, 취업지원 및 보수교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정마다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대개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은 교육시간이 등급별로 최소 90시간 정도가 소요되나, 90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과정이 15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습방법 면에 있어서도 온라인 강좌로 운영되는 과정이 11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론 강좌는 온라인 강좌가 가능하지만 실제 및 실습 관련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방법적인 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업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검정방법도 필기와 실기가 병행되는 과정은 48개 과정, 필기만으로 시행되는 과정이 47개 과정이 있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2개 과정이 있었다. 검정방법, 학습방법 등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어야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필기와 실기가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구성, 학습방법, 검정방법 등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보수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은 278개 중 11개 과정 뿐이었다. 그리고 취업지원을 지원하는 과정은 6개 과정밖에 없었다. 자격증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책도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과 취업지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4) 독서영역별 교육과정 전문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론과 실제가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각의 교육내용이 특강 형식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의 체계성, 연계성, 통합성, 지속성 및 확장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서영역별 교육과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관련 자격증이 2008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 278개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명칭은 시기별로 트렌드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 이전부터 '독서지도사'라는 명칭 앞에 어린이, 유아, 노인 등 대상별 또는 자격증 관리 업체인 대교, 재능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논술이 강조될 때는 독서논술지도사,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영어독서지도사,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독서심리상담사, 학습독서가 강조되면서 독서코칭지도사, 창의성이 교육과정에 도입되면서 창의독서지도사, 진로지도가 중요해지면서 진로독서지도사, 독서토론 및 디베이트가 새로운 독서지도 방법으로 강조되면서 독서토론지도사, 인성이 강조되면서 성품독서지도사 등 교육 및 사회적인 기조에 따라 자격증 명칭이 새롭게 생겨나 41개의 자격증 명칭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187개 각종 민간기관에서 독서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며, 등록 관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등록 후에 소관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어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격증 교육과정 및 운영 내용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 없이 기관마다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질적 수준에 문제가 많다.

현재 공교육 및 사회교육 기관 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을 담당할 인재들은 대학 교육기관과

연수기관에서 활발히 양성하고 있으므로, 독서관련 자격증을 국가 및 공적 자격제도 보다는 민간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자격증 등록,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독서관련 자격증 소관부처는 교육부가 204개 과정(74.5%), 보건복지부가 37개 과정(13.5%), 미정 33개 과정(1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독서관련 자격증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관리시스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격증의 내용과 형식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증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자격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겠다.

(2) 독서영역별 교육과정 내용, 이수시간, 검정방법, 보수교육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과정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을 작성한다.

현재 독서관련 자격증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명칭만으로는 자격증의 내용과 특성을 알 수가 없다. 독서의 영역은 크게 독서교육, 독서부진아 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독서능력을 개선하는 독서클리닉, 독서를 통한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독서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층별로는 학생, 교사, 직장인, 주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도 있고, 특히 혹은 말하기(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독서관련 자격증은 대부분 유아와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문자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독서지도 대상은 남녀노소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독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유사문맹자가 늘어나며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독서 영역별, 대상별, 매체별 독서관련 자격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지속적인 자격증 질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민간자격증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어 관리 측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 기관 187개 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47개 기관으로 25.1%를 차지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교육과

정 내용, 교육시간, 학습방법, 자격검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29개 기관(22.8%)에 머물고 있어 자격증 운영 실정을 알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김덕기에 의하면, 처음 등록할 당시의 양식을 사용하기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자격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재등록 절차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김덕기 외 2013, xvii). 독서관련 자격증 현황 조사결과 278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과정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홈페이지 안내란에 홈페이지가 등록되지 않는 과정이 74개(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함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자격증 등록제를 도입하여 홈페이지에 자격증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함으로써 자격증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이에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조치 및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의 결과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비공인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증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부는 아직 소관 부처가 없는 과정도 있다. 독서관련 자격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제고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독서문화진흥을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 감독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국가 공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즉 <독서문화진흥법> 제 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만큼 독서관련 자격증을 통한 독서인력 양성을 보다 전문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독서관련 직업시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학교 학력 이상보다 자격증 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및 사서 자격증 취득과 병행하여 독서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우리나라에 독서관련 자격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즉, 교육과정 중 이론적 체계는 물론이고 실천적인 측면에까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 및 표준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④ 독서관련 자격증이 전문적인 직업화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과정이수제와도 연동하여 대학의 학점부여, 사서 및 교사의 연수,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준비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⑤ 또한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혹은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수가 정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보수교육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낳았으며 이에 문자 이탈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독서력은 곧 사고력이고 이는 곧 개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독서관련 자격증의 합리적 운용시스템 마련을 하여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독서진흥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시대에 학습의 기초가 되는 독서능력을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학습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영역에서부터 활성화되어 독서가 개인의 창의성의 토대, 문화적 감수성과 향수권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수진. 1998. 『우리나라 독서교육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독서지도 전문인력양성과정의 현황과 개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新聞放送大學院.
- 교육부. 2013.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김덕기 외. 2013. 민간자격제도 질 관리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우열. 2008. 독서교육 지도자의 자질과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189-194.
- 서준호 외. 201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헌재. 1999. 초등학교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의 체문제. 『독서연구』, 4: 209-230.
- 이만수. 2009. 독서교육 관련 민간자격 교육과정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81-202.
- 이삼형, 박희찬, 정옥년. 2001. 독서교육전문가 역할과 양성. 『독서연구』, 6: 163-189.
- 이연옥. 2004. 독서의 사교육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41-63.
- 이정희. 2003.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 차성중. 2014. 독서지도 민간자격의 디지털 환경 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213-247.
- 최영환. 1999. 국민 독서 운동과 독서지도 전문가의 역할. 『독서연구』, 4: 283-306.

- 취업을 빙자한 자격증 홍수시대. 2014. 『주간경향』. 12월 9일.
 한국어문교육연구소·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2006. 『독서교육사전』. 서울 : 교학사.
 한철우. 1999. 중등학교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 방안. 『독서연구』, 4: 231-24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Woo-Yeoul. 2008. "A Study of the Training Program of Reading Education Profession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189-194.
- Cha, Sung-Jong. 2014. "A Study of the Curriculum Design based on Digital Environment for the Private Certificates of Reading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213-247.
- Choi, Young-Hwan. 1999. "The role of the National Reading Exercises and Reading Instruction Experts." *Reading Research*, 4: 283-306.
- Go, Su-Jin. 1998. *A Study on the Status and Future of Korean Reading Education System: Reading Instruction Focusing on Status and Improve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Courses*. M.A. Thesis, Jungang University.
- Han, Cheol-Woo. 1999. Middle School Reading Instruction Experts Plan. *Reading Research*, 4: 231-247.
- Kim, Deok-Gi et al. 2013. *Civilian Qualifications Quality Management Pla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Korea Institute of Literary Education·Korea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stitute edited by. 2006. *Reading Education Dictionary*. Seoul: Gyohaksa.
- Lee, Man-Soo. 2009.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the Private Certificates According to the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81-202.
- Lee, Sam-hyung, Hui-Chan Park, Ok-Ryun Jung. 2001. "The Roles and Cultivation of Reading Education Specialist." *Reading Research*, 6: 163-189.
- Lee, Yeon-Ok. 2004. "A Study on the Social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of Read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3): 41-63.
- Lee, Jung-Hee. 2003.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Reading Instructor*

- Training Course Operations*. M.A. Thesis, Pusan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3. Improving: Qualifications Framework Act Legislative Decre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 Seo, Jun-Ho et al. 2011. *Research Nationally Recognized Qualification for Civi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Sin, Heon-Jae. 1999. "Problems of Elementary Reading Instruction Experts." *Reading Research*, 4: 209-230.
- "Flood Certification Period for Employment." 2014. *Weekly Rend*. Issue 1104.